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효과

지난해 7월 지정 후 관람객 큰 폭 증가...누적 관람객 150만 명 돌파해



울산암각화박물관이 지난해 7월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이후 관람객이 크게 늘며 지역 문화관광의 새로운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인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등 2기를 포함한 유적으로, 지난해 우리나라의 17번째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이름을 올렸다.

세계유산 등재 이후 박물관

관람객 수는 전년 대비 월평균 75%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8월과 10월, 11월에는 관람객이 각각 1만 명을 넘어서며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 지난 2008년 5월 개관 이후 2025년 12월 말 기준 누적 관람객 수가 156만 명을 돌파했다.

외국인 관람객 증가도 눈에 띈다. 세계유산 등재 이후 외국 방문객 수는 2024년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관람객 증가에 발맞춰 암

각화박물관은 세계유산 등재를 기념해 특별기획전 ‘세계유산: 우리가 사랑한 반구천의 암각화’를 오는 2월 28일까지 개최한다. 이와 함께 세계유산 반구천의 암각화를 주제로 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1월 둘째 주와 넷째 주 화·목요일에는 유아 단체를 대상으로 암각화를 소개하고 체험하는 ‘숲속의 박물관 학교’를 진행하며, 1월 31일 토요일에는 가족 관람객이 암각화를 동기로 창작 활동에 참여하는 ‘암각화 공작소’도 열린다.

울산암각화박물관 관계자는 “세계유산 반구천의 암각화가 지닌 역사적·예술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열린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농업기술센터는 오는 1월 13일부터 30일까지 ‘2025년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호근 기자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특별법 통과총력

경상남도 산업국장, 국회 국토위 전체 의원실 찾아 입법 시급성 설명



경상남도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경남도에 따르면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은 지난해 12월 2일 여야 국회의원 42명이 공동 발의해 국회에 제출됐으며, 현재 국토교통위원회 논의와 있다. 이에 이미와 경남도 산업국장은 국회를 찾아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체 국회의원을 방문했다. 의원 및 보좌진들과 면담을 갖고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의 필요성과 특별법 제정의 시

급성을 설명하며 적극적인 입법을 요청했다.

이미와 산업국장은 “우주항공청 개정을 계기로 연구·산업·정주 기능이 집적된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은 국가 우주항공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라며, “이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비 지원과 제도적 특례를 담은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도는 특별법 제정 노력과 함께 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준비도 속도를 높여 진행하고 있다.

‘우주항공복합도시권 광역발전 계획’을 토대로 사천시의 협력해 건설공사를 위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개발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산업·연구·주거·교육·문화 기능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미래형 첨단도시를 단계적으로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개발사업을 사천시가 우선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특별법 제정에 집중하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국가의 지원 근거가 마련되고 인허가 특례와 규제 완화도 가능해진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새 정부의 국가 균형성장 정책과 맞물려 우주항공산업 거점을 중심으로 지역이 제도 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도는 지속적인 국회 방문과 관계 부처 협의, 전문가 정책 토론회, 지역 국회의원과 의 공조를 강화하며 조속한 입법을 위해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최성룡 기자

울릉도·독도 해상교통 공영제 도입촉구

울릉군은 제3회 경상북도 지방정부 협력회의에서 울릉도·독도 주민의 교통권 보장을 위한 해상교통 공영제 조속 도입 촉구 건의서에 대해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도내 전 시장·군수가 공동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 서명은 울릉도와 독도를 잇는 해상교통 문제가 더 이상 특정 지역의 현안에 머무르지 않고, 국가가 직접 책임져야 할 공공성과 영토 주권의 영역임을 분명히 하기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공식 입장 표명이다.

건의서에는 최근 국회에서 도서지역 주민의 교통권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관련 법률안이 발의·논의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울릉도·독도 해상교통 문제가 이미 국가 정책 차원에서 다루져

야 할 사안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울릉해상항로 공영제 도입은 단순한 교통 정책을 넘어 도서지역 주민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이동권 보장, 울릉도·독도 정주 여건 개선, 독도 영토 수호의 실질적 기반 강화, 국가가 영토 주권을 책임지고 관리한다는 분명한 대내외 메시지 제시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최우선의 국가 책무임을 명시했다.

이철우 지사와 도내 시장·군수들은 “민간 중심의 해상교통 체계로는 기상 여건과 수익성에 따라 주민 이동권이 반복적으로 위협받을 수 밖에 없다”며,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공영 해상교통망 구축은 도서지역 주민 보호와

국가 영토 수호를 동시에 실현하는 핵심 정책”이라고 뜻을 모았다.

이번 공동 서명된 건의서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 등 관계기관에 ‘해상교통 공영제’의 조속한 도입을 공식 건의할 계획이며, 앞으로 도내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울릉도·독도 해상교통 문제를 국가 정책 과제로 지속 건의해 나갈 방침이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해상교통 공영제는 주민의 일상과 생존을 지키는 동시에, 독도 영토 수호를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국가 정책인 만큼, 정부와 책임 있는 결단으로 조속히 제도를 시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윤석 기자

부산CES 2026 글로벌 기술·외교 네트워크 가동

▲삼성 ▲LG ▲현대차그룹 등 기업 전시관 방문 및 CTA 부사와 면담



부산시는 「CES 2026」 현지 일정에서 글로벌 기술·외교 네트워크를 연이어 가동하며, 미래산업 경쟁력 강화와 해외 투자유치 기반 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1월 7일(현지시간)] ▲통합부산관에서 부산경제진흥원과 헝가리 수출진흥청(HEPA) 간 업무협약을 체결해 지역 기업의 유럽 시장 진출 지원과 경제·무역 협력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으며, 윈(Wynn) 호텔에 마련된 ‘삼성전자’ 단독 전시관을 방문해 글로벌 선도기업의 미래 기술 전략을 확인했다.

[1월 8일(현지시간)]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LVCC)를 투어하며, ‘LG전자’와 ‘현대차그룹’ 전시관 등을 방문해 인공지능(AI), 로보틱스, 디지털 헬스 등 주요 최신 기술 트렌트를 살폈다.

현재 시는 ▲로봇·인공지능(AI) 융합산업 육성 ▲스마트 제조·물류 고도화 ▲미래모빌리티

및 자율주행 기술 실증 ▲디지털 헬스케어 등을 핵심 전략으로 추진 중이다. 특히 산업현장과 도시 공간에서 실증이 가능한 로봇·피지컬 인공지능(AI) 기술을 지역 산업 구조 고도화와 신산업 창출의 핵심 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다. 또한 선도기업의 로봇·인공지능(AI) 기술 동향을 정책에 적극 반영

영해 지역 제조업의 자동화·지능화를 촉진하고, 도시 문제 해결형 로봇 실증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CES 주최기관인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 부사와 면담을 갖고, 부산과 CES 간 협력관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면담에서는 부

산 기업의 지속적인 CES 참여 확대와 글로벌 기술·투자 네트워크와의 연계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부산이 아시아를 대표하는 혁신·기술 거점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국제 협력 모델과 지역 신생 기업·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및 해외 투자 연계를 촉진하기 위한 협업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같은 날 미 프로 미식축구(NFL) 팀 라스베이거스 레이더스의 홈구장인 얼리전트 스타디움을 방문해 레이더스 구단 사장과 면담을 가졌다. 부산시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글로벌 스포츠 구단 및 관련 기관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대형 스포츠 시설을 활용한 도시 재생, 관광 활성화, 민간 투자 유치 전략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유우 기자

Group14 상주공장(BAM-3) SCC55 출하식 개최했다

EV 실리콘 배터리 양산 신포탄, 지역 고교 인재 채용 상생 모델 제시

Group14 Technologies가 상주공장(BAM-3)에서 전기차(EV)용 실리콘 배터리 소재‘SCC55’의 본격 양산을 알리는 제품 출하식을 열고 글로벌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번 출하식은 상주공장(BAM-3)이 차세대 에너지 저장 기술의 핵심 생산 거점으로 공식 가동 단계에 진입했음을 알리는 상징적 행사로, 경상북도, 상주시, 지역 산업계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Group14의 SCC55는 기존

LIB(리튬이온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 최대 50% 향상, 10분 이내 EV(전기자동차) 초고속 충전을 가능케 하는 실리콘 음극재로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실리콘 배터리의 부피팽창 문제를 해결하고 기존 LIB 대비 수명을 현저히 개선하는 등 세계 최고의 제품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며 전 세계 2,000만 대 이상의 스마트폰과 전기차, 항공기, AI 기기 등에 적용되며 기술력을 입증해 왔다.

Group14는 상주공장(BAM-3)

을 통해 EV용 첨단 실리콘 배터리 소재인 SCC55를 상용 규모로 생산하고 있으며, 이미 지난해 9월부터 글로벌 고객사를 대상으로 제품 출하를 시작했다.

현재 상주공장(BAM-3)은 Group14 USA가 지분 100%를 보유한 생산시설로,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인력 배치를 완료하고 EV 수요 증가에 대응한 생산 체계를 구축했다.

초기 연간 생산량만으로도 전 기차 십만 대, AI 지원 기기 백만 대 이상에 공급이 가능한 규모다.

또한 Group14는 최근 지역 고교 졸업예정자 6명을 신규 채용하며, 지역 청년들이 첨단 배터리 산업 현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는 생산 확대와 더불어 지역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상주공장(BAM-3)은 선도적인 배터리 및 자동차 제조사를 포함해 100곳 이상의 고객사에 SCC55를 공급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생산 확대를 통해 EV용 실리콘 배터리의 글로벌 확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윤석 기자

사격선수단, 국가대표급 선수·지도자 영입 전면 개편

파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반효진 선수 등 우수 선수 영입, 경쟁력 강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사격선수단이 파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반효진 선수 등 국제무대에서 검증된 우수 선수를 영입하며 선수단 개편에 나섰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대구시, 사격연맹, 공단 관계자 등 내외의 관심과 사격선수단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국제사격장에서 사격선수단 신규입단 및

개편식을 개최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소총 종목에는 손성철 코치를 비롯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반효진 선수와 최가혜 선수가 새롭게 합류했으며, 권총 종목에는 카이로 세계선수권대회 금메달리스트 이건혁 선수, 스키트 종목에는 고근오 선수가 입단했다.

선수단 신규 입단 및 개편은 국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 전략적 재편의 일환으로, 공단은 종목별 맞춤형 훈련 환경 조성과 국제대회 경험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선수 육성을 통해 안정적인 성과 창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기봉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체계적인 기량을 갖춘

선수들이 합류해 매우 뜻깊다”며 “공단 사격선수단이 다가오는 2027년 대구 세계사격선수권대회에서 최고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도시개발공사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공 건설공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2025년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에서 우수 참여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지난해 현장 중심의 안전점검 강화, 안전교육 강화 등 현장 안전관리 내실화를 추진했으며, 올해에는 직제규정 개정을 통해 시장 직속 안전관리실을 신설하는 등 안전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윤석 기자

기후위기 대응과 도시재생 머물고 싶은 그린시티로!

거창군이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군민이 머물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도시 공간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군민 안전과 정주여건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도시바람길 숲’, ‘기후대응 도시숲’, ‘김천지구 도시재생사업’ 등 핵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거창군이 추진 중인 총 150억 원 규모의 ‘도시바람길 숲 조성사업’은 도심 곳곳의 기온을 낮추고 미세먼지를 줄이는 핵심 녹색 인프라 구축 사업이다.

사업은 건계정 - 거열산성 진입도로 - 남하면 - 창포원을 잇는 18km 가로숲 조성, 위천·황강을 따라 이어지는 5km 하천생성숲, 창포원 디딤·확산숲 등으로 구성된다. 2026년 착공해 2028년 준공이 목표이다. 거창군은 2024년 산림청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며, 사업비 50억 원을 확보했다.

조성 대상지는 △ 거창북합차고지 △ 제2창포원 일원으로, 총 5ha 규모의 미세먼지 차단숲·탄소저장숲이 만들어진다.

2025년부터 시작해서 2026년까지 단계별 조성이 추진되며, 고속도로와 복합차고지 등 미세먼지 발생원과 맞닿은 지역에 녹지를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환경개선 효과를 극대화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거창읍 생활권 녹지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주민에게 새로운 휴식 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노후화된 도심에도 공모를 통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생활거점을 만들기 나가고 있다. 2024년 국토교통부 ‘우리동네살

리기’ 공모에 선정된 김천지구 도시재생사업(총 83억 원)은 거창읍 강남 생활권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대상지는 거창읍 김천리 일원으로, 노후주택·골목길 정비, CCTV·보안등 설치 등 생활SOC가 확충된다. 군은 기존의 화전교차로 및 주차장 사업 등 생활밀착형 행정에 더해, 대규모 녹지·재생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폼팩트 그린시티 모델’을 완성해 나가고 있다.

최성룡 기자